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김성관 목사 위임식예배 거행

동서울노회 주관하에 8월 21일(목) 오후 7시30분 본당에서

교회는 오는 8월 21일(목) 오후 7시 30분에 김성관 목사 위임식예배를 갖기로 했다.

위임식예배는 이를 위하여 동서울노회에 설치한 위임국 주관하에 실시하게 된다.

위임식예배는 예배와 위임식으로 나뉘며 예배는 동서울노회 위임국장 구준모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다. 목도, 성시, 기원에 이어 찬송가 507장(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을 부르고 대표기도는 세곡교회의 이상천 목사가, 성경 봉독은 영동제일교회의 노태진 목사가, 찬양 순서는 충현교회 연합찬양대가 담당한다.

나성빌라델피아교회의 조천일 목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다. 조천일 목사는 김성관 목사가 학생 시절에 김 목사를 가르친 분이다.

찬송 505장(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 목)으로 예배를 마친 후 이어 위임식이 계속된다. 위임식에는 위임국장이 위임받는 목사와 본 교회 교우들에게 서약을 시키는 순서에 이어 위임국장이 위임기도를 하게 된다. 기도 후 위임국장이 김성관 목사가 충현교회 위임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게 된다.

공포 후 위임패와 위임축하패를 증정하고 권면의 순서를 갖는다. 총회서기 예종탁 목사가 위임목사에게, 중경노회장 김주배 목사가 교인들에게 각각 권면을 한다.

권면 후 축사의 순서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최훈 목사, 총회 부총회장 신세원 목사, 노회장 장정탁 목사가 각각 축사를 한다. 특이한 것은 축사 시간에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새뮤얼 로간(Samuel Rogan) 총장이 내한하여 축사를 하게 된다.

축사 후 기획위원장 김차생 장로가 기념품을 증정하고 본 교회 목사·장로 중창단의 특별 찬양이 있다. 이어서 당회서기 김은호 장로의 광고, 찬송(245장), 김창인 원로목사의 축도로 위임식예배를 모두 마치게 된다.

김성관 담임목사는 지난 5월 11일 공동의회 의결을 거친 후 6월 6일에 부임하였고, 그후 교회의 공식 예배의 모든 설교를 담당하여 오다가 7월 21일 출국하여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그동안 공부해 온 목회학 박사학위 과정을 마무리짓고 지난 8월 15일 귀국했다.

김성관 목사는 본 교회에 부임한 이래로 짧은 시간 동안에도 당회원과 교역자와의 면담과 교회내의 여러 부문을 살피며 교회 내적인 문제에만 전념해 왔다. 또한 복음적인 설교와 찬양에 대한 새로운 이해 등으로 새벽기도회를 갈릴리홀에서 본당으로 옮겨 실시할 만큼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되었고 금요집회가 새로운 영적 활력을 찾는 시간으로 인식되게도 하였다.

이제 위임목사로 충현교회에서 새롭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됨에 따라 성도들의 배전의 기도와 도움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오늘, 찬양예배시
학습세례식 거행

대상자는 예배 시작 20분 전에 참석

교회는 오늘(8월 17일) 저녁 찬양예배시 금년들어 세번째 갖는 학습세례식을 거행한다.

금년부터 학습 및 세례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두 주간에 걸쳐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요일 저녁 시간에서 주일 저녁 시간으로 바뀐 학습세례식은 당사자들이나 교인들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오늘 학습세례식의 대상자들은 저녁찬양예배 20분 전까지 본당에 나와 미리 지정된 좌석을 확인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남녀전도부 임역원을 위한
영성훈련 실시

오늘 오후 3시, 강사에 김성관 담임목사

전도위원회(위원장 강은원 장로)는 지금까지 각 교구 전도회가 친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운영되어 온 점을 이제부터는 이룸에 걸맞게 실질적인 전도 활동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남녀전도부 임역원을 대상으로 한 영성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같은 훈련을 통하여 전도회의 사명을 좀더 바로 깨닫고 전도 사명을 고취시키며 복음 전파와 교회 부흥에 헌신과 열심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훈련의 강사는 김성관 담임목사이고 오늘(8월 17일) 오후 3시에 갈릴리홀에서 실시한다.

고 박상준 장로 교회장



우리 교회 시무장로로 섬기던 박상준 장로(사진)가 지난 8월 11일 저녁 지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3일 오전 10시 교회들

에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고 박상준 장로는 1994년 10월 제 28대 장로로 장립받은 후 교회내 여러 분야에서 충성 봉사하며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으며, 금년에는 선교위원회, 봉사위원회, 군전도회에서 수고해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현옥 권사와 아들 박동찬, 동희, 딸 원선 성도와 자부 강은숙, 배영주 성도, 사위 이민수 성도가 있다.

교역자 청빙 및 임면

8월 정기당회에서 정현민 목사를 청빙하기로 하고 한근수 목사를 16교구 지도에서, 또한 개인사정으로 협동목사직을 사직하는 정구남 목사를 장년3부 지도에서 면했다. 또한 부목사로 새로 부임할 정현민 목사를 16교구 지도로, 김재철 목사를 장년3부 지도로 임명했다.

이상의 보직 변경일은 8월 31일이다.

정현민 목사(사진, 1963년 생)는 계명대학 경영대학,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일교회, 거여동교회, 성석교회에서 사역해왔다.

97년도 전반기
감사를 실시합니다

- 기간 : 8월 31일까지
- 시간 : 10:00 ~ 14:00, 15:00 ~ 16:00
- 장소 : 선교관 404호
- 대상 : 당회 산하 각 위원회 및 소속 기관
- 준비물 : ① 원장 ② 증빙서류 ③ 통장 ④ 사산표 ⑤ 금전출납부
- 문의 : 감사위원회실 (교환 354)



인도네시아 의료 단기선교

금년의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는 예년과 달리 의료진을 중심으로 짜여졌고 활동도 의료활동에 치중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13시간의 거리에 있는 이리안자야의 도청 소재지에서 다시 경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 비행하여서 찾아가는 곳은 인도네시아의 오지인 카루바가. 그곳이 이번 사역지였다. 그곳에서 전혀 정상적인 진료를 받아보지 못한 1,000여 명의 원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활동을 전개했다. 신기(?)에 가까운 의료 기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온 의료선교팀의 보고는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은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또한 금년도 여름 농어촌, 낙도, 오지의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간증 중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문을 열더라는 것이었다. 전도라는 조건도 없이 그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어쩌면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지도 모른다. 사진은 카루바가 의료 선교진 앞에 모인 원주민들.

● 김창인 목사의 이사야서 강해 ●

무익하게 된 포도원

(이사야 5:1-2)

이 사야 5장은 '무익한 포도원'이라는 안타까운 비유(사 5:1-7)와 그 해석(사 5:8-30)으로서 백성의 죄와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기록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킨 비유로서(사 5:7) 오늘날에는 땅 위에 세운 교회를 가리킵니다. 또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을 가리켰고, 오늘날에는 교회의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1. 포도원을 세운 방법

(1) 심히 기름진 산에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세우시려 할 때에 아무 데나 세우지 않고 심히 기름진 산인 가나안 땅에 세웠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장대에 끼워서 두 사람이 마주 베어야 할 만큼 기름진 땅에 유다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2) 땅을 개간하였습니다

땅을 파고 큰 돌들을 깨어서 굴러 버리고 거기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였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라는 말은 개간을 하였다는 의미로서 유다 나라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악독한 일을 일삼는 모든 민족을 가나안 복지에서 제거해 버리고 여기에 유다 나라를 세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돌과 같은 완악한 마음들을 제하고 우상을 섬기던 과거의 못된 구습들을 돌을 파내듯이 하나하나 추려 버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3)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란 하늘나라의 생명나무인 복음(진리)을 심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4) 지도 체제를 갖추어 주셨습니다

'망대를 세웠다'는 말씀은 임금, 장관, 국회의원 등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세워 지도 체제를 갖추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당회를 세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당회를 세운 목적은 이단이나 불순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포도나무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인 교역자들을 두셨습니다. 이렇게 망대를 세우면 도적이 포도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이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5) 헌신 방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술들을 밟았도다'라는 말씀은 유다 백성이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조제

제도를 제정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2. 포도원을 세운 목적

포도원을 세운 목적은 가장 충실한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포도원의 절레와 잡초를 뽑을 때에 가시에 살이 찢기고, 거름을 줄 때에 땀을 흘려야 했고, 가지치기를 하고 해충을 잡아 주면서 애를 쓰던 농부는 포도 열매가 충실히 맺은 것을 보면 모든 고난을 잊고 기뻐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순수하게 성령의 열매만 맺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1)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 주시고, 하나님이 나같은 못난 것을 위하여 교회에 주의 사자님들을 세워서 늘 가르쳐 주신다는 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하여 죄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 마귀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한 길을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②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늘 기뻐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첫째, 속죄함을 받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천국에 가서 상받을 생각을 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생명들을 보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③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화평은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끼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끼리 연합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원수와도 화목해야 합니다. 원수와 화목하려면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줄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 우리와도 하나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④ 오래 참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세운 목적은 가장 충실한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순수하게 성령의 열매만 맺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집안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참아야 합니다. 욕심, 분, 고생을 참으면 못 참을 것이 없습니다.

⑤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비와 양선 이 두 말의 뜻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면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준다는 의미입니다. 나보다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천대하지 말고 구제해 주고 나보다 못된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⑥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충성이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세워 놓고 책임을 다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책임을 다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책임을 다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⑦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온유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까지 돌려대는 것입니다. 온유는 실력이 있으나 참으면서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이긴 사람만이 온유합니다. 온유는 실력이 아주 강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온유하기 위하여 선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⑧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절제는 모든 일에 조심한다는 말입니다. 쌀 한 톨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절약할 줄 압니다. 순서를 지키면서 조심하는 것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2) 교회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 세상과 짝했던 것들을 끊어 버리고 예수님과 하나된 교회와 성도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그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야 하겠습니까.

농부가 포도원을 세운 목적은 기둥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 열매뿐입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국회의원, 장관, 기술자, 문학박사 같은 사람들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큰 인물이 됩니다.

원컨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품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진액을 받아먹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임금님처럼 명령하실 때에 나의 몸은 순종하는 도구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3. 포도원을 세운 결과

유다 민족은 포도 열매를 맺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들포도를 맺었다'는 말은 다른 것만 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못된 것만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해야 할 일만 해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포도만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는데 그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3년이나 열매맺기를 기다렸으나 열매가 없어서 찍어 버리자고 하신 주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모두 치치해 버리실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교회는 다른 것은 일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다른 것을 하면 그것은 세상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현교회는 일체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좋은 포도만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

① Next Sunday's Message By Rev. Kim, Sung Kwan ①

THE HOPE OF GENTILES

(Romans 15:7-13)

I have a certain practice when I study and meditate on God's Word. I always personalize Scripture by applying its message directly to me. Several days ago, I was reading today's passage and it really touched my heart. I was so excited and happy! I couldn't let go and kept thinking about it. I continued my studies by referencing several bible commentaries. Commentaries provide insightful historical and scholarly presentations that help further one's understanding of Scripture. However, even the commentaries did not mention the wonderful revelation of hope contained in Romans 15:7-13 that God spoke to my heart. Furthermore, its author, Paul, who was a Christian Jew and led by the Holy Spirit didn't and couldn't fully understand its meaning. I am a Christian Gentile and I completely understand the hope of Gentiles and pray that you, too, will feel and understand this amazing hope!

Paul brings this chapter of his letter to the Roman church with a reminder for all Christians, who are 'weak and strong', to follow after Christ. Moreover, although he is not the founder of their church, he is the apostle to the Gentiles, and it is in that capacity that he has written to them. As Christ welcomed us without discrimination, so let us (the church) make room for one another without discrimination. "Accept one another, then, just as Christ accepted you, in order to bring praise to God" (vs. 7). As Christ has welcomed you, most especially the weak and poor, so the church needs to welcome one another unreservedly so that God will be glorified by His people's mutual love and kindness. It is so important for the church to remain united together, not separated by the strong in faith and the weak in faith because Christ despises neither of them.

"For I tell you that Christ has become a servant of the Jews on behalf of God's truth, to confirm the promises made to the patriarchs" (vs. 8). Christ became a servant to the Jewish people. He was sent only to the lost sheep of the house of Israel to show God's truthfulness (Mt. 15:24). Christ came not to receive service but to give it - first, and directly, to the Jews, in order to fulfill the promises which God had made to their forefathers, and then also to the Gentiles, that they might rejoice in God's uncovenanted mercy.

But if the bringing of the gospel to the Jews fulfilled the promises to the patriarchs, the evangelization and conversion of the Gentiles were also foretold in the Old Testament. Paul adduces a catena of Old Testament testimonia in which the Gentiles are presented as praising the God of Israel and placing their hope in Israel's Messiah. Christ's direct ministry to 'the circumcised' was continued by the apostles, "so that the Gentiles may glorify God for His mercy, as it is written; 'Therefore I will praise you among the Gentiles; I will sing hymns to your name' (vs. 9). A quotation from Psalm 18:49 where David, having incorporated non-



① 김성관 목사의 다음주 설교 ①

이방인의 소망

(로마서 15:7-13)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성경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제 자신에게 적용시킵니다. 며칠 전, 저는 말씀을 읽는 중 오늘의 본문 말씀이 제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매우 흥분되고 기뻐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저로 하여금 계속 생각하게끔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 권의 성경 주석들을 참조하면서 본문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 주석들은 저에게 영감 있는 역사적이고 학술적인 깨달음을 주면서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도와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석가들도 로마서 15장 13-1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속에 말씀해 주신 놀라운 희망에 대한 계시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은 로마서의 저자 바울 또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본문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방인 기독교인으로서 이방인들의 소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여러분 또한 이 놀라운 소망을 느끼며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의 서두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로마 교회의 설립자는 아니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차별 없이 우리들을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받아 주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7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환영하신 것처럼, 교회도 제한 없이 서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향하여 친절한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사이에 나누이지 않고 서로 연합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8절).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마 15:24).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직접 유대인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신 이방인들 또한 기뻐하게끔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이룬 것이었다면,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 또한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소망을 이스라엘의 메시아에게 두고 있는 구약의 반복되는 간증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사역은 제자들에게 의하여 계속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9절).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 18편 49절에서 인용한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자들을 그의 제국에 들어오게 할 뿐더러 그들이

Israelite nations in his empire, counts them as now belonging to the heritage of the God of Israel.

Paul continues to quote Old Testament Scripture, "Again, it says, 'Rejoice, O Gentiles, with his people'" (vs. 10). (A quotation from the Song of Moses (Dt. 32:43).) "And again, 'Praise the Lord, all you Gentiles, and sing praises to Him, all you people'" (vs. 11). A quotation from Psalm 117:1, where the whole world is called upon to praise the God of Israel for His steadfast love and faithfulness. "And again, Isaiah says, 'The Root of Jesse will spring up, one who will arise to rule over the nations; the Gentiles will hope in Him'" (vs. 12). A quotation from Isaiah 11:10, where the expected Messiah of David's line, 'shall stand as an ensign to the peoples; Him shall the nations seek'. The fact that Gentiles would be blessed by the gospel Paul sees as something clearly predicted in Old Testament times. This meant that he viewed his own ministry as God's means towards the fulfillment of his promise to the Gentiles.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as you trust in Him, so that you may overflow with hop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vs. 13). The grand object of the Gentiles hope is the glory of God.

The Jews are God's chosen people. That's a biblical truth no one can deny. Prior to Christ's crucifixion, access to God was limited solely to the nation of Israel. Gentiles had no hope. As a first generation Korean-American, I was not born into the traditional Jewish family. I am not a Christian Jew. I am a foreigner - a Christian Gentile. Without Christ, no one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community of the people of God. In Christ, not only believing Jews are blessed but also believing Gentiles! Without Christ, I have no hope of royal connections. In Christ, I have hope. I have a much better hope than Prince Charles, the future king of England. In Christ, I have hope of becoming a king in an eternal kingdom! This special hope, this amazing blessing is given so that Christian Gentiles may glorify God for his unceasing mercy.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유업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구약의 말씀(신 32:43)을 인용하면서, "또 가로되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10절)고 하였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저를 찬송하라"(11절)고 하였습니다. 이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한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12절). 이는 이사야서 11장 10절의 인용으로써,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가 "열방을 향하여 기호가 될 것이요 열방이 그를 찾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구약에 확실하게 예언되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말은 그가 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13절). 이방인들이 소망하는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인 저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가문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저는 유대인이 볼 때에 외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는 유대인들이나 믿는 이방인들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찰스 황태자나 영국의 미래 국왕보다 더욱 나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저는 영원한 나라에서 왕 노릇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소망과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까닭입니다. 아멘!

☞ 주한 외국인근로자 수련회에 참가하고 ☜

영원한 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 지 트

(선교위 외국인 근로자 교육생)

저는 95년에 한국에 일하러 왔습니다. 96년 1월 3일에 경기도 광주 충현기독교원에서 신광식 집사님과 구영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만나게 해 주셨다고 마음에 믿습니다. 신 집사님, 구 집사님은 함께 우리 공장 기숙사에 와서 성경 말씀과 한국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96년 7월에 제 친구 말리와 함께 충현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기쁩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96년 7월 19일에 충현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스리랑카 사람으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좋았습니다. 나는 말리, 신 집사님 부부와 함께 경기도 광주, 수지, 동두천, 부천 지역에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충현교회에 많이 나오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 모두가 등록할 것입니다.

96년 10월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여러 분들이 자주 오셔서 기도해 주셨고 부모님처럼 나를 도와 주셨습니다. 또 퇴원 후에는 몸이 회복될 때까지 자신들의 집에 와 있

라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모든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1월 1일 윤삼중 목사님, 최영란 전도사님과 집사님들이 심방해 주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직장이 없을 때는 9-10명에게 침대, 이불, 먹을 것을 마련해 주셨고 직장도 구해 주셔서 주께 감사합니다. 또 현정남 전도사님이 스리랑카어 성경책을 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가족부에서 환영성경책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등록후 임태주 전도사님이 저의 집에 심방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스리랑카, 인도, 몽골 친구들이 많이 와서 같이 한국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예배때 설교 말씀을 50-60% 알아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께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외국인들을 위해서 7월 31일 ~ 8월 2일에 남이섬에서 마련한 수련회에 참석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 수련회 가나 하고 우리

들끼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빨리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수지 지역에서 55명, 광주 지역에서 100명이 참가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버스 한 대를 추가했습니다. 오후 9시 30분에 도착하여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6개 팀으로 나뉘어 숙소를 배정받았습니다.

8월 1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예배드리고 9시에 아침식사 하고 각자 좋은 대로 팀별로 베드민턴, 축구, 배구를 했습니다. 또 강변도 산책했습니다. 캠프 파이어에 쓸 지저스 스리랑카, 지저스 인도 글씨를 철사에 숨을 감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불을 붙이는 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예배를 드리고 캠프 파이어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함께 찬송을 부르며 무언극(칼을 가는 드라마)도 보며 자정이 넘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8월 2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승림 목사님께서 영어와 한국어로 인도하는 예배를 드린 후 아침 식사하고 축구, 베드민턴, 배구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주님 안에서 좋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아무 사

고 없이 예수님이 지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이섬에서 좋은 숙소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많은 인원이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지내면서 못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 주신 충현교회에 매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저와 교회 나오는 많은 친구들이 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 가운데 키가 큰 사람이 아지트.



◆ 해외 단기선교 사역을 다녀와서 ◆

인도네시아의 오지
까루바가의 선교사들

손 철

(장로, 의료전도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의료 사역을 마치고 오게 된 것을 먼저 감사 드린다. 7월 28일 아침 김포를 떠나 저녁에 자카르타에 도착하여 서만수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자카르타 연합한인교회의 숙소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새벽 4시에 기상하여 자카르타공항을 출발하였다. 소형 제트기를 타고 13시간이 걸려서 이리안자야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자야프라에 도착하였다. 실제 직선거리로는 서울에서 자카르타까지 보다 약간 짧은 곳이지만 중간 기착지가 4군데였기 때문에 길고긴 비행이었다. 인도네시아의 5개의 주요 섬 중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이리안자야는 파푸아뉴기니와 합치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섬이라고 한다. 여기에 사는 종족은 인도네시아의 중심지인 자바섬이나 그밖의 다른 지역 사람들과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고 거의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았다.

공항에는 우스만이라는 현지인이 마중을 나와서 숙소로 안내하였다. 60년대의 여관과 비슷한 시설이었지만 그래도 에어컨이 있고 화장실에는 샤워할 수 있는 물 저장통이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화장실의 특징은 어디를 가도 화장실에는 휴지를 볼 수가 없고 물통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인지 치질 환자들 이 없다고 한다. 말라리아 치료제는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야프라 시내 약국에 가서 충분한 양을 구입하였다. 사역지인 까루바가로 가기 위하여 새벽 5시에 공항에 도착하여 사람과 짐 모두 무게를 측정하였다. 9인승 세스나 비행기는 1000kg을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지와의 무선통신으로 까루바가 상공에 구름이 많아 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대합실에서 4시간을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우리 일행은 작고 아담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물 건너고 산 넘어 1시간 20분을 비행한 후에 까루바가에 도착하였다. 나로서는 이렇게 소형 비행기를 타보는 것이 처음인데 산 속의 언덕을 깎아

만든 활주로에 착륙할 때에는 영화의 한 장면이 연상되었다. 선교항공단 소속의 미국인 조종사의 비행 솜씨가 믿음직스러웠다. 그의 부인은 5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와메나 군청소재지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활주로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자한 모습의 이이장간 목사님이 그들을 대표하는 분이었고 그외에도 여러 명의 목사가 더 계신다고 하였다. 미국인 선교사들이 거주하던 숙소로 안내되었는데 거실과 주방 그리고 침실과 화장실들이 완벽하였다. 짐을 풀어서 라면으로 가볍게 점심을 때우고 약품을 정리하여 교회에서 진료를 시작하니 오후 3시경이었다. 어두워질 때까지 열심히 봤지만 의사 두 사람과 간호사 두 사람이 겨우 50명을 진료하였다. 밖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예약표를 나눠 주고 숙소로 돌아와서 내일 1000명 가까운 많은 환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진료 방침을 정하기로 하였다. 저녁에는 해발 1500m의 산간지역이라 추울 정도여서 서울의 무더운 날씨를 생각하니 정말 좋은 곳에 피서를 겸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음날은 어느 정도 환자들의 상태가 파악되었기 때문에 속도가 붙어서 400명을 진료하였다. 자카르타 교회의 김철구 전도사님과 박용기 집사님의 유창한 인도네시아어 실력과 현지인들의 통역으로 의사 소통은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말라리아 환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중환자도 몇 사람 있었다. 들것에 실려와서 의식이 희미할 정도로 몸을 떨고 열이 있었던 환자가 치료를 받고 3시간 후에 걸어서 나갔다. 점심식사 후에 오후 진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회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일행에게 건의할 말이 있다고 하였다. 말투가 너무 강경하여 듣고 보니 우리 중에 의사 한 사람이 남아서 계속 진료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아마도 지금까지 이렇게 제대로 —

우리의 수준으로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었지만 — 진료를 받아 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였으리라.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지금은 확답을 해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오후 8시까지 쉬지 않고 보았지만 환자들은 줄어들지가 않았다. 밤을 새워도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서 하수 없이 증세별로 환자를 분류하여 약을 나누어 주고 용법을 설명하고 돌려보내었는데 그래도 꼬박 3시간이 소요되었다. 밤 11시가 되어서 숙소로 돌아왔는데 도착하는 날부터 김정희, 김양자 두 분 집사님께서 환자 치료뿐 아니라 식사 준비를 위하여 이중으로 수고를 해주신 덕분에 우리들은 피곤치 아니하고 힘있게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일반외과 의사로서 애매한 질병의 진단에 김대환 집사님의 역할이 컸으며 한용배 집사님은 의료진을 위해서 총괄적인 업무를 잘 관리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중요한 환자는 빠지지 않고 진료하였으며 주민들도 만족해 하는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근처의 전통가옥을 돌아보고 선교사들이 지어놓은 진료소도 돌아보았다. 의료기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용도 폐기된 상태였는데 다시 설비를 하고 물과 발전기가 해결이 된다면 수술도 가능할 것 같았다. 2시간 가량 새로운 환자를 진료하고 간단한 약품을 목사님께 넘겨드렸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쉬운 작별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활주로 주변에서 손을 흔들며 환송하는 까루바가 주민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또 다시 길고 긴 비행기 여행을 시작하였다.

까루바가엔 1967년부터 1989년까지

의 오랜 기간을 열 명의 미국인 선교사가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이 지역은 기독교 마을이 되어 있었고 과거에 두 분의 선교사가 이웃 마을에 선교를 갔다가 식인을 당했는데 그분들의 파출된 순교로 말미암아 그 마을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의료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축을 키우고 식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 또한 물을 모으는 방법 등을 개발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는 일이 시급한 것 같다. 그래야 질병의 발생률도 감소가 되고 노동력이 증가되어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서만수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개척교회는 무려 167군데인데 이중에는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오지가 많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땅끝이 아니겠는가. 8일간의 짧은 기간에 어렵고도 복잡한 세계선교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세계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부분적으로나마 체험하고서는 우리도 직접, 간접으로 선교에 참여하며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현지에서 보고 부딪치는 가운데 가슴 속에 와 닿는 것을 느꼈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까루바가의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보다 더욱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노력은 축복이 남에게 베푸는 축복이 되고 결단코 화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또한 이번 의료선교를 위해 많은 약품을 제공해 주신 한서약품 대표 권철 집사님, 이유주 집사님,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선교 보고를 마친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신 고 박상준 장로님!

어떻게 살면 그토록 아름답고 존귀한 축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며 모든 생도가 그토록 소망하고 부대위하는 평안의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주께 맡긴 모든 역사를 힘과 열과 생애를 다 쏟아 행하신 장로님의 생전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 해답이 되었기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충분히 했습니다. 무르익은 과일이 먼저 주인의 기쁨이 되고 큰 즐거움이 되는 것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만유의 주 여호와께는 최고의 찬양을 바치는 행상 최신을 요구하시고 기뻐하심을 우리는 알고 또 확인하였답니다.

이미 부르심을 받고 밝고도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신 박상준 장로님!

이제는 불려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된 판 장로님의 따뜻하고 너그럽고 밝고 밝은 그 여유 있는 웃음과 피조된 자태와 품위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로 영상으로 자리잡고 있음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 조 사 ●

고 박상준 장로님을 그리워하며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살아 남아 있는 제자들이 부끄럽고 슬픈 마음이 있음은 무슨 연고일까요. 우리는 아직 실력은 과일로 주인의 기쁨에 자격 피달로 살아 남아 있다는 자괴감도 씻을 수가 없군요.

이 시간 장로님의 잠깐 앞에 머리 숙인 생전의 믿음의 동지로, 친구로, 형제로, 또 남편으로, 아버지로. 좋은 발들을 기억하면서 소망없는 자들처럼 슬퍼하거나 허무한 장송곡을 부르지 않으렵니다. 오직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새 예루살렘에서 금빛 찬란한 주의 얼굴을 뵈오면서 즐겁게 찬송하실 때 장로님을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행할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칠 것입니다.

고 박상준 장로님!

장로님이 고대하고 소망하던 뜻대로 천국 환송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시던 날은 제각대로라면 우리의 작은 소망이요 꿈의 터전인 작은 농장에 가서 비제함을 올리면서 가꾸고 심기로 하였으나 생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몇 분 장로님들께서 즐겁고 거쁜 날로 장로님의 제생의 최후의 장식을 베풀어 주심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에 마지막으로 될 줄이야 꿈엔들 그 누가 예감했으리요. 이제는 저 천국에서나 만나게 될 그 모습 그 인자한 재래는 이제 형영이 땅 위에서는 볼 수가 없게 되었으니, 오, 그것이 슬프고 그것이 마음 아플 따름입니다.

만나면 형님 같았고 다윗에게 요나단 같았던 박 장로님!

이제는 요나단을 잃은 다윗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다정했던 친구 장로님들의 의로움도, 쓸쓸함도, 일주일에 한번씩 회포를 풀던 그 자리를 어찌 잊으시렵니까.

아니, 떠나 새단 순환에 그렇게도 애정하게 한 마디의 남감도 장부도 없애 홀연히 떠나 버려졌습니까. 좀 며칠이라도 앓다가 가셨더라면 하고 한숨지으시는 김현옥 권사님을 어떻게 위로하시렵니까.

오랜 사람 중 한 사람이 받을 복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박 장로님. 이제는 병원 약을 먹지 않아도 감사를 받으실게 아니어도 되는 저 분향으로 가셨습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릴지언정 울지는 않겠습니다. 이 교회당에서 함께 웃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마리가 회어전 이 교회당을 떠나시는 장로님. 부대 평안히 쉬소서.

1997년 8월 13일
함께 장로된 정정주 올림

취재수첩

97 하반기 성경연구원 수강생 모집

8월 10일~9월 7일 접수

교육훈련원은 97년도 하반기 성경연구원 및 선교연구원의 학생 모집을 하고 있다.

후반기 교육 일정은 9월 7일 개강에 배에 이어 9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이다. 주요 분야는 주간 성경공부반의 호세아서 외 9개 과목, 양육훈련 초급반 2개반, 중급반 2개반, 교사양성부, 찬양대원양성부, 선교연구원 등이다.

강의에 따라 소정의 수강료가 있는 반이 있고 본 교회 교인은 물론 타 교회 교인도 등록하여 수강할 수 있다. 등록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관 103호 교육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유치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바로 쌓아주기 위해 8월 24일(열매반)과 31일(꽃반)에 성경퀴즈대회를 실시한다.

를 실시한다.

▶ 소년부에서는 앞으로 있을 가을 대심방을 준비하는 교사기도회를 오는 8월 24일(다음 주일) 충현기도원에서 실시한다.

교정전도회

충천소년원예배시 쏘 피아노 구해
교정전도회(회장 이정우 장로)에서는 전국 교도소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파할 사명감 있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충천소년원에 특별 예배가 개설되었는데 이 예배시에 사용할 피아노를 기증할 성도도 찾고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제소자들이 변화되어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이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란다(문의 / 본당 지하 1층 교정전도회 사무실).

실업인전도회

삼척에 교회 신축

7월 28~30일에 현지에서 수련회

실업인전도회(회장 임무천 장로)에서는 금년도 주요 사업의 하나로 전국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현재 강원도 삼척에 있는 대진교회(강병조 강도사 시무)의 교회당을 신축 중에 있다. 지난 6월 9일 착공한 이 교회당은 연건평 98평의 2층 건물로 아름다운 교회당 건축을 위

하여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회원들이 기도와 헌금, 실제적인 공사 감독 등으로 헌신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28~30일에는 이곳 신축 현장에서 여름수련회를 실시하여 참석한 회원들이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였다(사진).

그동안 설립인전도회는 미자립교회

의 지원뿐 아니라 불우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회원들의 사업장의 복음화를 위하여 다양한 행사들을 계획, 실시해왔다. 자영업을 하거나 기업체의 직장인은 물론 직장 복음화에 뜻을 가진 성도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문의 교육관 112호, 교환 448).

☞ 우리 부서 소개 / 루디아전도회 4지회 ☜

병원과 감호소 돌며 말씀 전파

이 영숙

(집사, 루디아전도회 4지회장)

루디아전도회 4지회

에서는 매주 수요일 1부예배를 드린 후 9개 부서가 2주씩 돌아가면서 두 명씩 짝이 되어 용산 중앙대학부속병원으로 전도를 나간다.

병실을 돌면서 환자들과 보호자를 만나면서 조그마한 전도용 책자와 충현의 만나 그리고 주간충현을 가지고 전도한다. 매일 돌볼 수가 없어서 관심을 갖기를 원하거나 기도를 부탁하는 환자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고 병원 원목실에 게시는 전도사님에게 연결을 해드리면 전도사님이 매일 돌보시면서 기도를 해주신다.

또한 접수실에서 글을 못쓰시는 분들을 대신하거나 어느 진료과를 가야 할지를 모르는 분들을 도와 주면서 전도를 한다. 병실문을 열 때는 등에서 땀이 나고 마음을 줄이면서 들어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볼 때에 감사하면서 많은 회원들이 보람을 느낀다.

서울 소년감호소는 법원 안에 있다. 사회의 한 구석에서 14세 ~ 20세 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질러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잠시 거처가는 곳이다. 루디아 전도회원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이나 물품들을 전해 주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과 사랑을 들려 준다.

이 사회의 한 구석에서 따뜻하게 기도해 주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차갑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속옷에 편지도 써서 넣어 주고 양말도 넣어 주면, 그 아이들이 편지를 보고 감사해 한다. 더러는 답장을 보내오기도 한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수단 김영대 선교사 ※

내실있는 신앙교육 위한 사역에 박차

김창인 원로목사님과 김성관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일로 부흥중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현장에 있는 선교사는 충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본 교회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며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의 기념비(금자탑)를 세워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무더위가 한창인 한국 날씨에 온 교회 성도들의 영육간에 강 건함을 기도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전번 원로목사님 '성역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받은 교훈과 도전들 그리고 김성관 목사님을 모신 일 그리고 선교대회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선교위원회 목사님 장로님 실행위원과 관련된 성도들이 뜨거운 관심과 만남으로 구체적으로 배풀어 주신 사랑과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 협조해 주신 교회 직원들께 지면을 통해서 감사

드립니다.

본 교회에서 받았던 많은 분들의 은혜와 사랑의 기억들이 스쳐지나갑니다. "피뎌온 예수님 손으로 선교사의 손 붙잡아 주셔서 동행하시고 뜨거운 나라지만 예수님 동행해 주셔서 시원케 하옵소서!" 하시던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기도, "선교 일선에서 자유케 하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부릅시다. 복음만 전하십시오!" 격려해 주시던 김성관 담임목사님, 각교구별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보여 주신 정성어린 우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셨으면서도 교회 일을 제일 걱정하시면서 담당 선교사를 위해 끊임없이 염려하시던 권사님,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안수집사님, 바쁜 와중에도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어 초대해 주신 집사님의 모습, 새벽기도 시작을 감사하면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집사님의 사랑... 수많은 사랑의 빛들이 수없이 스쳐 지나 갑니다.

저희들은 수단에서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대하고 겸허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이와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 할지니라."

2. 다시 정리된 마음으로

(1) 성경 66권 교재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전적으로 성경 묵상과 기도로 이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말씀 교육 선교사역을 정착시키려 합니다.

(2) 개혁신학 프로그램 10권(영어통신과정을)을 개설, 존 칼빈 '기독교강요'에 대한 요약 을 첫번째 교재로 하여 충성된 사람들에게 교육하여 지도자를 삼는 지도자 양성반을 정리가 되는 대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본인부터 학생으로 시작했습니다.

(3)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와 교회 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착되지 않았으나 경건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를 현지인들에게 심으려고 합니다.

(4) 개종자들만 방문하고 상담하는 상담자를 임명 지원하여 주간동안 계속 이 일을 하고 보고받고 가정교회를 세워 나가기로 했습니다. 개종한 한 형제가 건강 문제로 특진을 받아 계속 돌보고 있습니다.

3. 계속되는 기도제목들

(1) 주님의 지상명령과 한국 교회에서 세계를 향한 역사적 사명과 비전을 구체화 하는 본 교회를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선교위원회를 향한 앞서가는 선교 방향 설정 및 기구 확대 및 강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서만수 선교사님의 건강하심과 사모님의 안정 그리고 계속되는 선교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대회를 통하여 가까워진 여섯 분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피차 사랑으로 뜨겁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편지로 교통하기를 기도합니다.

(3) TEE(신학연장교육)를 중심으로 한 지역 모임이 강화 및 확산되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자동차로 17시간 떨어진 포트 수단에 개척된 지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4) 모든 대인관계가 아무 일도 없는 쉼장은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깊어져서 돌보고 협조하도록 기도합니다.

(5) 수단 한글학교를 수단정부에 등록 중인데 완결되면 선교사들의 자녀 및 교민들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여 아랍어 영어교육에도 일익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공익사업이 선교 사역과 아름답고 비밀리 연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글학교 교사가 2명 정도 필요합니다. 이 학교는 8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좋은 일꾼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